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비중있게 나타나

정리 : 김용화기자

양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말은 양계산물의 「제값받기」라고 하고 있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선 알아야 그 원인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양계인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참여도가 낮아 정확도는 다소 낮을 수도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양계인들의 의식을 분석코자 한다.

유통구조개선이 제일 비중 커
현재 양계인들이 양계산업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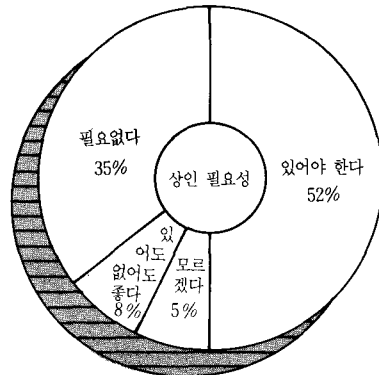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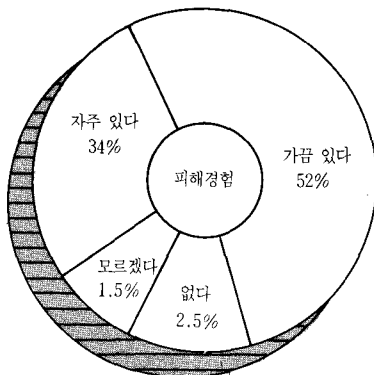
다음은 시설의 현대화, 과잉생산 억제, 질병억제, 생산성 향상, 소비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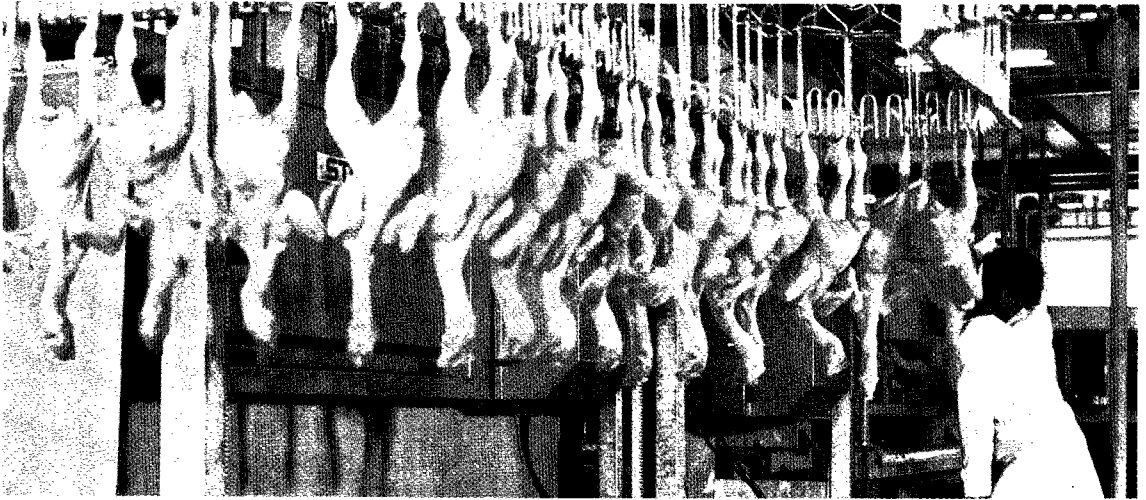
이것은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연중 가격의 진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투자가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통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따라다니는 대명사는 상인 또는 소개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응답한 생산자

중 80%가 상인에게 생산물 출하를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 판매도 하고 상인에게도 의존도 한다는 사람이 20%를 차지해 결국 100%에 가까운 생산자들이 생산물 출하시 상인(소개소)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상인에게 산물출하를 맡기다 보니 거래관계상 수만가지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때로는 상인이 생산자를 착취한다 하여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상인을 타도해야 한다고까지 거센 반발을 보여 왔던게 사실이나 응답자의 반





응은 상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자주 있다 34%, 가끔 있다 52%, 없다 2.5%, 모르겠다 11.5%로 답한 반면, 유통과정에서 상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52%,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8%, 필요가 없다 35%, 모르겠다 5%로 각각 응답하였다.

상인들에게 86%에 가까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상인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통

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나 현재의 여건상 산물처리 방법은 역시 상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상인의 횡포가 있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상인이 강해서 2%, 생산자가 단합이 안돼서 77%, 양계산업 구조 특성상 17%, 행정단속이 없어서 2%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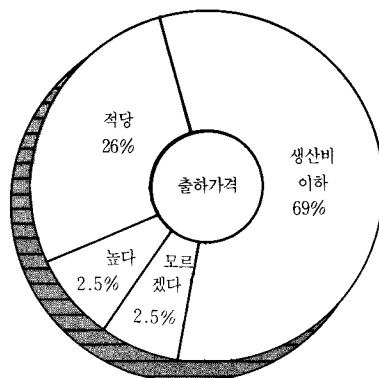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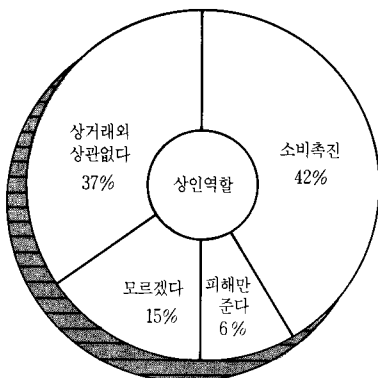
이 항목에서도 상인의 횡포는 생산자들이 단합하지 못한테서 비롯되고 있다고 반응을 나타내었다.

특이한 것은 상인들의 단합이 강

해서라는 물음에 응답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상인 필요성 인식해

오히려 상인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생산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상인의 역할에 대해 생산자에게 피해만 준다 6%, 상거래 외에는 상관이 없다 37%,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킨다 42%, 모르겠다 15%로 응답하여 생산자들은 상인들이 양계산물 소비를 위해 절대



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가장 양계인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였던 계산서 발행에 있어 후장기제도는 이제 없어져가는 제도이고 현장계산서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출하시 현장계산서 내지 현금결제가 83%에 이르고 있으며, 1개월 어음이 14%, 2개월 어음이 3%순이었다.

산물가격 낮다는 반응 보여

양계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양계산물 출하가격면에 있어서 적당하다 26%, 생산비선 이하 69%, 높은 편이다 2.5%, 모르겠다 2.5%로 그래도 적당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예상외로 많았으나 절반이상이 생산비선 이하라고 응답하여 구조적으로 유통구조가 해결되어 출하가격이 높아지던지, 생산비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생산자들이 최근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계협동조합 설립을 통하여 37%, 집하장이나 공판장을 설립하여 43%,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11%, 정부가 참여하여 9%로 응답한 결과로 보아 집하장이나 공판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와 같은 여건이 계속된다면 양계업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하겠다 11%, 더 정황을 보아서 57%, 그만두겠다 26%, 모르겠다 6%였는데 계속하겠다 보다는 그만두겠다는 반응이 높았으며 앞으로의 정황을 보아서 선택하겠다는 쪽이 50%를 넘고 있어 현재의 양계산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양계인 절반가량이 아직도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기 보다 경기변동 여하에 따라 양계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계인들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인데, 여건상 상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하면서 양계산물 처리에 상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도 집하장이나 공판장 설립을 원하고 있으나 추진해 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듯하다.

“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산물출하가격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상인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생산자들의 단합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가장 많음을 보면 양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능동적이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양계인들은 유통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며 생산자들의 단합이 안되고 있음을 시인한만큼 양계산물의 「제값받기」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함께 뭉쳐서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